

與 '김민석 총리 인준안' 끝내 단독 처리... 野 표결 불참

李대통령 지명 한 달 만에... 野선 표결 강행 규탄대회 金총리 "폭정 세력이 만든 경제위기 극복이 제1 과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3일 국회에서 여당 단독으로 가결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새 정부 첫 총리로 지명한 지 한 달 만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출석 의원 179명 중 173명이 찬성했고 반대 3명, 무효 3명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민주화 이후 단 한 차례를 제외하면 출범 후 한 달이 되도록 새 정부 첫 총리가 임기를 시작하지 못한 적이 없다"며 "새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위기 극복 사명을 부여받고 인수위도 없이 출범했다는 점에서 국회의장은 이 상황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비상계엄 상태로 불가피하게 지속된 총리 권한(직무)대행의 체제를 이제는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페이스북에서 '국회 인준에 감사드립니다'는 글을 통해 "국민의 뜻을 하늘같이 받들고, 대통령의 방향을 바다에서 풀어내고, 여야를 넘어 의원들의 지혜를 국정에 접목시키겠다"고 밝혔다.

또한 "폭정 세력이 만든 경제위기 극복이 제1과제"라며 "대통령의 참모장으로서 일찍 생각하고 먼저 행하는 새벽 총리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김 총리 후보자 임명에 반발해 표결을 거부하며 본회의에 불참하고 국회 로텐더홀에서 표결 강행에 항의하는 규탄대회를 벌였다.

송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한 달 전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는 소통과 협치를 복원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가 열리고 있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등을 규탄하고 있다.

연합뉴스

며 "하지만 취임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지금 이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 되었다"고 비판했다. 지난달 24~25일 열린 김 후

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재산 형성 의혹, 중국 청와대 석사 논문 표절 의혹, 아들 입시 관련

특혜 논란 등을 문제 삼았다. 또한 김 후보자의 자진 사퇴 또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또한 국민의힘이 김 후보자의 자료 부실 제출을 주장하며 청문회는 마지막 날 파행했다. 김진강 기자 kjk2156@skyedaily.com

與 "희망의 국정 기대" 野 "자화자찬"... 李 회견 엇갈린 반응

민주 "민생회복·권력기관개혁 등 과제 남아" 국힘 "진실 덮기 포장... 기대보다 실망 크다"

3일 열린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30일 기자회견에 대해 여야의 반응이 극명하게 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 펼쳐 갈 국정과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국민 기대를 더욱 크게 하는 기자회견이었다"고 평가한 반면 국민의힘은 "자화자찬만 가득했다"고 평가절하했다.

박상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오늘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역시 국민권정부가 펼쳐 갈 국정과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더욱 크게 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 대통령은 시종일관 국민-언론과의 소통을 통해 통합의 국정을 만들고 민생과 국민안전 지키는 국가의 책무를 다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와 열망, 자신감을 확인시켜 줬다"며 "정부의 국정 철학

과 정책 방향을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 눈을 맞추는 대통령의 모습은 오만과 독선, 불투명한 3년이 끝나고 정상적인 정부가 들어섰음을 모든 국민에게 확인시켜 줬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숨 가쁘게 30일을 달려왔지만, 민생회복과 경제의 선순환 구조 복원, 사회안전망 구축, 국의 중심 실용외교, 권력기관 개혁 등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며 "이 대통령이 앞으로 내란의 역경을 빛의 혁명으로 이겨 내신 위대한 국민의 저력을 모두가 잘사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원동력으로 바꿔 내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 또한 국민권정부와 보조를 맞추며 소통과 협력의 국회를 만드는 한편, 대한민국 정상화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취임 30일 기자회견은 '낮 뜨거운 자화자찬'이었다며 깎아내렸다.

송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좋은 말씀도 물론 있지만, 지난 30일에 대한 자화자찬만 가득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역대 가장

빠른 기자회견이라 얘기했는데, 사실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빠른 자화자찬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 대통령의 취임 30일 기자회견은 진실을 덮기 위한 포장일 뿐"이라며 "민생은 여전히 비명을 지르고, 안보는 흔들리고, 법치는 무너지고 있는데, 대통령은 자화자찬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민생-외교-안보 등 실제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복과 정상화'를 운운한다"며 "경제난, 물가폭등, 주택대출 규제 역차별, 안보 불안에 대한 실질적 해명이나 대책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박성훈 대변인은 논평에서 "취임 후 한 달 기대보다는 실망감만 가득하다. 주가만 거품처럼 오르고 있지만 민생의 어려움은 그대로"라며 "이 대통령은 현실을 외면한 정치 쇼를 멈추고, 국민을 가르치려 하기보다 더 겸손한 태도로 책임 있는 국정 운영에 나서 달라"고 밝혔다.

김진강 기자 kjk2156@skyedaily.com

민주 "尹 외환죄 날낫이 밝혀야"

"국가안보 근간 무너져" 비판

더불어민주당은 3일 "윤석열이 드론을 평양 상공에 투입하라고 직접 지시했다는 군 지휘관의 녹취가 공개됐다"며 "녹취가 사실이라면, 윤석열과 김용현은 대한민국을 전쟁의 위기로 몰아넣으려고 시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지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고 "한 사람의 권력을 지키려고 국군을 정치의 도구로 삼아 전쟁 위협을 조장하려고 했더니 끄적하"고 했다. 이어 "더욱 심각한 것은 국가안보실이 작전을 정식 군 통제 체계 밖에서 추진했고, 증거 기록을 조직적으로 폐기했다는 의혹"이라며 밝혔다.

또한 "대한민국 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존재이지, 정권의 안위를 지키는 수단이 아니다"며 "윤석열 한 사람의 권력욕에 군의 기강은 물론



지난해 10월19일 북한이 평양에서 한국군에서 운용하는 드론과 동일 기종의 무인기 잔해를 발견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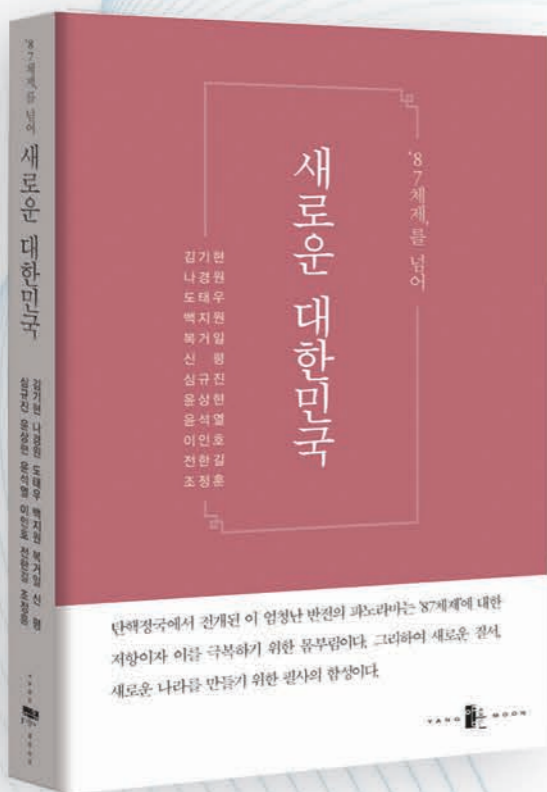
연합뉴스

이고 국가안보의 근간이 무너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내란 특검에 'V 지시'의 실체를 끝까지 추적하고, 관련자 전원을 엄정히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며 "조은석 특검은 군을 권력의 도구로 사용한 내란 수괴와 외환죄를 방관하거나 도운 군 책임자들을 모두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진강 기자 kjk2156@skyedaily.com

'87체제' 좌파 기득권 질서에 저항하는 광범한 국민운동을 기록한 책



이 책은 광화문과 여의도, 한남동, 서부지방법원과 헌법재판소 앞 곳곳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랑곳없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하여 기꺼이 자신을 희생한 거룩한 무명용사들께 바치는 헌정이다.



헌법재판소는 엄중함과 공정함을 보여야 함에도, 부실한 심리를 거듭 반복하면서 '담정녀' 속도전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 김기현

좌파 기득권 세력·그에 붙어 있는 기생 세력·그리고 기회주의 이 세가지는 우리는 반드시 분쇄해야 된다. - 나경원

책의 의식과 의지를 망각하면, 공산 전체주의와 포퓰리즘이 파고들어 결국 자유는 상실되고 말 것이다. - 윤상현



윤석열 대통령의 피청구인 최후변론 포함·탄핵정국의 좁고 어두운 날들에 대한 기록
새로운 질서·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필사의 함성